

본고딕  
思源黑体  
源ノ角ゴシック

Source Han Sans

思源黑體

Google™

Adobe

## 어도비·구글, 한·중·일어 동시 지원 무료 서체 출시 언어장벽 없이 인쇄·웹용 글로벌 서체 통일

어도비는 지난 7월 16일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일본어, 라틴어, 그리스어, 키릴 자모까지 지원하는 오픈 소스 서체 '본고딕 (Source Han Sans)'을 출시했다. '본고딕' 오픈 소스서체를 사용하면 글로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쇄물이나 웹 파일을 만들 때 언어에 상관없이 하나의 통일된 서체를 사용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한국어도비스스템즈

본고딕은 단일 서체 모음 안에서 15억 인구가 사용하는, 지역별 언어를 지원하는 첫 오픈 소스 서체 모음이다. 한국어를 비롯해, 일본어, 중국어 번체(대만 및 홍콩 포함), 중국어 간체, 그리스어와 라틴어, 키릴 자모 등을 지원한다. 모바일 기기 화면과 인쇄물 모두에 적합하게 디자인됐으며, 총 42개에 이르는 모든 서체에서 7가지 굵기로 제공된다.

어도비는 각 지역에 최적화된 서체를 만들기 위해 구글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산돌커뮤니케이션, 중국의 창저우 시노타입(Changzhou SinoType), 일본의 이와타(Iwata) 등 각국 서체 개발사와 함께 개발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서체당 6만5535개의 글리프를 디자인했는데, 이는 오픈 타입 포맷으로 지원되는 글리프 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전세계 디자인 및 개발 커뮤니티간 협업을 돕기 위한 공동된 목표로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에는 100여 명에

이르는 개발자 및 디자이너가 참여했으며,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본고딕은 어도비 타입킷(Adobe Typekit)과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Adobe Creative Cloud)에 포함된 타입킷 서비스를 통해 데스크탑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소스포지(SourceForge)와 깃허브(GitHub)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어도비 한중일 및 베트남 서체 개발 수석 컴퓨터 공학자 켄 룬드 박사는 "지금까지는 디자이너들과 개발자들이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제작 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언어로 된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디자인의 서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했다. 이것은 시간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비효율적이다"라며, "본고딕은 어도비의 30년 서체 개발 역사상 가장 방대하고 포괄적인 서체로, 구글 및 서체개발 파트너들과의 협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새로운 오픈 소스를 통해 콘텐츠 제작자들의 보다 원활한 작업을 돕고 동아시아 사용자들에게 한층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밝혔다.

리눅스 업슨 구글 엔지니어링 담당 부사장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를 위한 새로운 오픈 소스 서체인 노트 산스 CJK(Noto Sans CJK)\*를 출시하게 돼 기쁘다. 이 서체가 노트(Noto) 모음에 추가됨으로써 모든 언어를 완벽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라며 "노토 산스CJK는 어도비와 구글, 각국 서체개발업체가 협력해 만들어 낸 결과로, 크롬 OS 및 기타 구글 제품 모두에서 텍스트를 매끄럽게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본고딕을 구글의 노트 범 유니코드(pan-Unicode) 서체 모음 중 하나로서 노트 산스 CJK(Noto Sans CJK)라는 이름으로 제공한다. ↻